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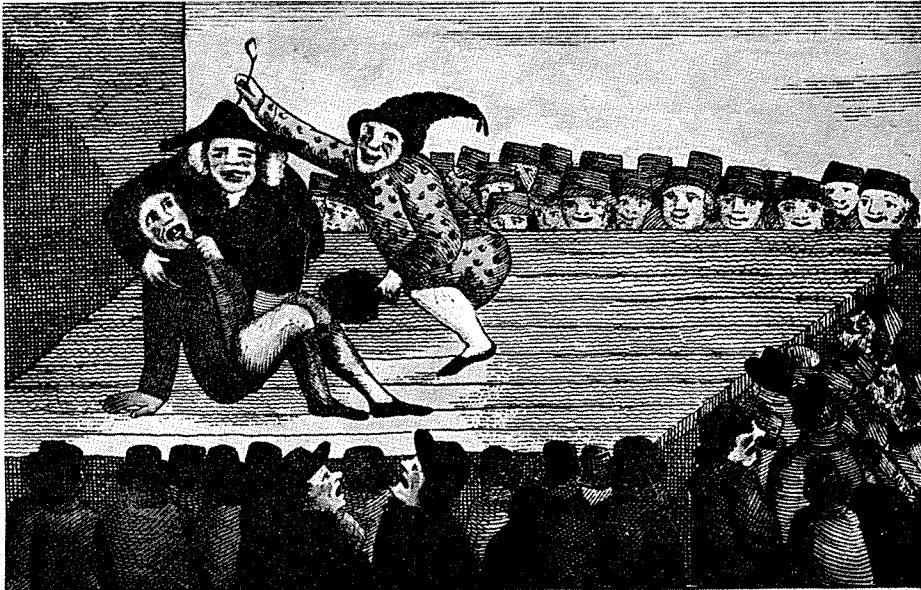
美術作品을 통하여 본 齒科医学

Hob and Stage Doctor(妖精과 무대醫師)

金星齒科医院

(17C 후반 Davison Alnwich作)

金 圭 炆



HOB and STAGE DOCTOR.

이 作品은 판화로 조각하여 채색을 한 비교적 희귀한 작품으로 作者인 Alnwich는 잘알려져 있지 않다.

막도 없는 무대를 중후하게 만들어 그 위에서 치과의사가 발치 시술을 하는 장면으로 요정같은 광대를 등장시켜 일종의 Stage manner을 가미하여 최면, 즉 혼을 빼다 싶히하여 발치하는 장면이다.

광대의 등장은 16~17C 의료시술의 중요한 보조자로 등장했으며 고통을 참고 기다리는 환자와 관중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고 있다.

그림상단의 관중들은 충분히 구경꾼으로의 큰목을 찾지한 즐거움이 있으나, 하단의 뒷모습만 보이는 관중과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는 두환자(?)의 대화는 “저렇게 해도 아프지 않을까?” “아니야 좀 아플것도 같고 안 아

플것도 같아”하고 말하는 것같은 착각을 준다.

美術作品중에서 齒科시술을 등장시키는 큰 이유는 표현예술중의 진수라고 하는 회화중에 고통과 해방을 주데마로 직접적인 作家의 내심의 표현을 묘사하는 방법이 제일이라고 하는 점일 것이다.

치과를 소개로한 美術作品중에 Great master라고 하는 초상화에는 대장장이가 쓰는 연장과 비슷한 발치 감자가 등장하여 그림의 내력적인 안정을 기한 반면 Little master라고 하는 풍경화에서는 구두 수선장이의 연장같은 것이 등장함은 흥미있는 일이며 Little master 作品世界에는 齒科醫師의 직업적 재능이 충분히 묘사되고 발치감하는 뚜렷치 못하며 관습등으로 한층 리얼리티를 눈보이게 한다.



研究와 精進을 指向하는

寶 城 合 金

寶 城 齒 科 技 工 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5

代表 朴 允 三

☎ (53) 3411 (55) 3204